

The Sanctified Life...Flesh v Spirit I 성화된 삶... 육체 vs 성령 1 (갈 5:13-18)

From Justified to Sanctified

So far in Galatians, we've seen the Apostle Paul, very strongly & clearly addressing the issue of the false teaching of the Judaizers over the *means of* 'justification.' Justification = God's legal verdict of 'not guilty' — acquitted of guilt — standing 'righteous' before Him.

The means, the false teachers were teaching was the work of Christ+ the addition of works of the Jewish law — with a particular emphasis as we saw last week, on male circumcision. That as we also saw, stood for confidence in the flesh — human effort in meriting God's favour....drawing the contrast b/w circumcision & Christ. The question behind that was 'who or what justifies me?' A: Christ alone

This week in the passage before us, we see a transition from the means of justification — to the matter of sanctification.... The questions behind this passage is, 'How am I to live?' The answer — not in a licentious way but in walking by the Spirit.

It might seem like the obvious answer.....yet how often we forget the war that rages between the Spirit & our own sinful desires..... We still default to indulging our sinful desires & related to that....how often we can feel defeated & lose heart in our sanctification. Instead of being confident in *progressive sanctification* we feel like failures & if we're honest....when we think about our struggle with sin the reality might seem more like *regressive sanctification*

The passage gives a warning followed by a wonderful promise & reassurance about the Spirit's empowering for true holiness Purpose: Heed the warning of the flesh & be empowered to walk more confidently by the Spirit.....ultimately *to grow in holiness*

After contrasting the false faith in circumcision with true faith working through love in Christ.....

의로움에서 성화로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칭의”에 대해 말씀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유대교인들의 문제를 매우 강력하고 명확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법적 선언이며, 그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던 바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의 일을 신뢰하는 것이었으며, 인간의 업적을 의지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누가 혹은 무엇이 나를 의롭게 하는가 질문을 할 때, 이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얻음의 기반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구절에서 바울은 이 “칭의”에서 “성화”의 주제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현세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의 답으로, 우리는 방종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뻘한 대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우 자주 성령과 우리 육체의 죄악 된 욕망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죄악 된 욕망을 충족시키며, 이로 인해 삶 가운데 쓴 패배감을 느끼며, 낙심할 때가 많지 않나요? 성화의 진보함 가운데 확신을 얻기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오히려 성화의 퇴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함과 성화를 위해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확신과 함께, 경고가 뒤에 따라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의 목적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안에서 좀 더 확고한 삶을 살아, 결국엔 우리가 거룩하면 안에서 성장케 하기 위함입니다.

A Warning of the Flesh (13-15)

V13, 'For you were called to freedom, brothers.....'

For the second time in the chapter, Paul mentions the purpose of God's call of salvation in Christ — to be free. By that, Paul means from the tyranny that comes from being under the law.....that is.....being found 'guilty' as law-breakers or sinners & under judgement. In fulfilling the law perfectly & dying as the great substitute for sinners who trust Him, Jesus freely — by grace brings freedom from the law's penalty.

So, if the law no longer convicts & condemns.....the question b/w the first & second sentence is, 'am I free to live with reckless abandon?' Paul answers, "no" v13b, 'Only do not use your freedom as an opportunity for the flesh, but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

The God-honouring response in light of the freedom Christ brings from sin's penalty is not to be licentious — ie using the freedom from sin's penalty to indulge sin — but rather like Christ to use the freedom that He purchased for us to love as He loved. We remember from the December morning series that He is Isaiah's great Servant. In serving us with the ultimate self-giving love He freed us to serve one another through love.

The warning comes not to see liberty as an opportunity for licence. It's that perverted response to grace that Paul anticipates in Romans 6:1 'What shall we say then? Are we to continue in sin that grace may abound?' A: 'By no means!'

v14, 'For the whol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You shall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Paul echoes our Lord's words recorded in the first three gospels when he says in v14 that 'the entire law is summed up – or literally, fulfilled in the command from Leviticus 19:18 to,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Though we may wonder why Paul says 'the entire law' when the Lord Jesus in Matt. 22:38 also quoted Deut 6:5 as greatest command,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soul...mind.' before he quoted Lev. 19:18

육체의 경고 (13~15 절)

13 절 “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 자유를 위함이라 다시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으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한다면, 방종함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13 절 후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새번역)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자유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응답은, 이런 자유를 우리의 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 절 설교를 통해 보았듯, 그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위대한 종임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그는 우리를 섬기셨고, 그 섬김의 결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구절에서의 경고는, 이런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잘못된 은혜의 응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1~2 절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4 절 “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여기서 첫 세 복음서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는 “온 율법”의 요약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38 절에서, 신명기 6:5 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길 때, 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온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It's because the way I treat those around me says everything about my relationship with the Lord — the quality of my love for Him. The Apostle John said, 1 John 4:20 'If anyone says, "I love God," and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h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God's word asks each of us, what the history of my relationships with others reveal? A long line of associations marked by love or more than a few where the relationship has soured to the point where I'd be uncomfortable being in the same room as those people? It's easy to say we love God, but my love or love-less patterns towards others shows where my love truly lies.

This very expression of sinful indulgence had begun to infect the Galatians enough for Paul to warn them, v15 '(But) if you bite and devour one another, watch out that you are not consumed by one another. 'Here again, we see the nature of sin is for it to escalate. In this case it's the case of ungodly conflict...the words Paul uses metaphorically are translated, 'bite' & 'devour.'

To bite is the first step in ungodly conflict — putting another down — snapping — backbiting — denigrating — usually out of annoyance — it may be motivated with the intent of trying to get the other person to do what I want or it might simply be an ungodly attempt to try & satisfy my own anger by putting them in their place as I try to make myself feel better.... When I indulge my sin further, I devour....the other person does too....I also suffer — we both end up consumed — destroyed

PR: 'conflict in the church is a kind of spiritual suicide...how mad it is that we who are members of the same body should voluntarily conspire together for mutual destruction 'Plenty of churches with sound gospel ministries & a commitment to faithful exposition of Scripture have been destroyed.....because one person with a grievance - instead of loving & honouring the other to speak personally let resentment fester & misunderstanding grow

그 이유는, 내가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나와 주님의 결과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사랑함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20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관계는 과연 어떠 한가요?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과 같은 방에 불편할 정도로, 안 좋은 관계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인 근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한편으로 사랑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바울이 경고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들을 감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절에서 이같이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죄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는 다툼의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이런 다툼을 묘사하기 위해 바울은 “물고 먹으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다”라는 단어는 다툼의 첫걸음으로, 이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며, 헐뜯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하던가 아니면 그저 내 화풀이의 대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을 계속해서 충족시킬 때, 그 다음 단계로 상대를 ‘집어삼키려’ 할 수 있습니다...결국 이런 행동은 다른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행하게 함으로, 그 고통이 나에게 오게 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파괴합니다.

Philip Ryken 이라는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은 영적 자살과 같다...같은 몸의 구성원인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로의 파멸을 꾀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친 일인가?”*

불만을 가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대화하는 대신 분노와 오해가 커지게 함으로 건설한 복음 사역을 하며, 성경적 설교를 하던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That began to form a faction....to make warring parties....tearing each other apart & the church — the very place where love for one another should shine the spotlight on Jesus has shown itself to be worse than the world with its strife, resentment & division.

The word calls us to be warned & to repent where we've used our freedom as a free-reign to give vent to our sinful desires & beyond that to know the infinitely better way.....

The Promise of the Spirit over the Flesh (16)

v16, 'But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you will not gratify' is the strongest means of negation found in the NT. It makes this a profound promise..... it is absolutely certainty that if we walk by the Spirit we will not indulge the sinful nature.

That's the central point of this passage — it's the Lord's great purpose that we would take this to heart to grow in holiness. But the question is, what does it mean to 'walk by the Spirit?' It's helpful to think of the context of the ancient teachers who would teach their students while leading them on a walk.

So, to walk by the Spirit is to follow the Spirit's lead. It's not following feelings or secret words of knowledge or mystical experiences. It's pursuing the Word — 2 Tim 3:16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The Holy Spirit is united with the Word because the Spirit inspired — 'exhaled' — God's word.

We walk by the Spirit when we 'walk with the Lord, in the light of His word' as the line from the hymn says. The Spirit applies God's word to our hearts — to transform us to be more like our Lord Jesus.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ensures our sanctification is *progressive*. While our sanctification won't be complete until we meet the Lord....the promise means it will surely advance!

이런 교회 안에서의 파벌이 생기고, 분열되게 될 때,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 해야 할 교회가, 갈등과 원망, 분열로 세상보다 더 악한 곳임을 스스로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경고하며, 우리의 자유로움을 죄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육체를 이길 성령에 대한 약속 (16 절)

16 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한 부정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는 약속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그래서 이를 통해 강조되는 약속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점입니다. 우리가 이를 마음 깊이 새겨 기록함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크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으로, 산책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고대 교사들의 배경에서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어떤 감정이나, 지식의 비밀이나, 신비로운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딤후 3:16 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씀함은, 이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과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말씀) 순종하는”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 시키 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은 우리의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날까지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지만, 여기서 발견하는 약속은, 우리의 성화는 반드시 진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The times when the opposite appears to happen....are the times we find ourselves resisting the Spirit.....not doing what the Word says....At times we can find ourselves stuck in sinful habits... We mustn't be deceived into believing the lie that there's no way out....for that is to fall into sinful despondency.

James 4:10, 'Humble yourself in the sight of the Lord & He will lift you up'
go back to His word....ask Him to expose sin....convict sin....ask His help to repent of sin...pray for renewed submission of His lordship over that area....& when temptation comes — ask the Spirit for grace to resist...‘I have stored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ay not sin against you.’ Psalm 119:11

The God given guide who is God the Spirit lives with us & loves us...His gracious command to walk with Him....when we follow, means that we won't indulge sin.

Yet, the Word also calls us to understand the war that rages within....

The War of the Spirit v the Flesh (17-18)

V17, 'For the desires of the flesh a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desires of the Spirit are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opposed to each other, to keep you from doing the things that you want to do.'

It's a realistic picture that Paul paints for us. Though we have a certain safe haven in the Spirit, there's no sinless perfectionism on view. The conflict is real & that means we will at times not walk by the Spirit, but rather do the opposite — give in to our selfish desires.

James 4 gives us a typical scenario that fits with what was happening among the Galatian believers — what can happen with us 'What causes quarrels and fights among you? Is it not this, that your passions are at war within you? You desire and do not have, so you murder. You covet and cannot obtain, so you fight and quarrel.'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 퇴보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옛 죄의 습관에 다시 빠지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런 삶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는 거짓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왜냐하면 이는 최악의 낙담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야고보서 4:10 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드러내고, 당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간구하십시오...그리고 죄로 물들었던 삶의 부분에, 주님의 주권과 그를 향한 순종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그리고 죄의 유혹이 다시 올 때, 성령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유혹을 저항하십시오... 시편 119:11 “ 내가 주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 계명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계명이며, 이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싸움 (17~18 절)

17 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그려주는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성령 안에서 확실한 안식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이생에서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갈등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때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죄악 된 욕망을 따라 살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 장은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치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1~2 절, 새번역)

When we give in to our selfish desires, rather than pursue what the Spirit wants....it shows that the war is real. One of the ways we can be deceived is to think that we've progressed sufficiently in holiness for the war to be of minimal danger. It can show itself by our failure to rely on the Spirit by depending on God's word & actively — regularly humbling ourselves before Him in prayer.

We know certain things are wrong, yet we still sin by doing them. Sometimes we keep sinning so that particular sins become habitual.....because we haven't taken the battle seriously. We mistakenly think either that it's not so serious or that we'll change by a decided effor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at describes the Galatians....how often does it describe us in our sin?....caught between licence & legalism —between thinking that grace allows abandon or that obeying rules brings redemption?

It's that latter aspect of legalism that Paul addresses...V18,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law.' Paul has already said in 4:5 that the reason the Son was born under the law was to redeem those under the law to receive adoption as sons — ie as heirs. The answer to the battle b/w the Spirit & the flesh isn't the law! In other words, the law won't help us overcome our war with the flesh ie our own sinful desires.

That's often not how we think. Again I'm reminded of Paul Tripp's question, 'are we trying to use the law to do that which only grace can accomplish?' The law is important because it reveals our sin, weakness & failure. But it has no power to change ie sanctify us — when I think I can grow through the power of my own moral efforts, I put myself back under law....when I think that others will change by rule keeping....I show that I've become a legalist — a recipe for disaster

Christ came to redeem us for justification....He also paid for our sanctification. The Spirit brought regeneration to salvation...He leads us in grace for holiness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할 때이는 영적 분투가 실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방법 하나는, 나 자신이 이런 영적 분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거룩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함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행함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투를 심각하고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 때로 특정한 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문제이며, 언젠가는 결단력 있는 노력으로 변할 거로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지 않나요? 방종과 율법주의 사이에 갈혀, 은혜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 18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바울은 4:5 절에서 이미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죄하여 양자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의 답은 율법이 아닙니다! 말인즉 육신과의 싸움, 우리 자신의 정욕을 이기는 데 율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다시 한번 Paul Tripp 의 질문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은혜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성화된 삶을 살며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나 자신의 도덕적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는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 놓는 것입니다...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타인이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때, 이는 내가 율법주의 자가 된 것을 나타내며, 이는 재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그는 또한 우리의 성화를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통해 중생 하였고, 그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Walk by the Spirit's Power for Holiness

There are times when we find ourselves defeated by sin....Ashamed that the mature believer we like to portray merely adds hypocrisy to iniquity...Know that we have the strongest possible assurance that our progressive growth in holiness is guaranteed.

The former Presbyterian Moderator General of Australia, Rev David Jones captured the hope of this passage when he said, "We're not fighting a losing battle — we're still fighting — still struggling, but we're not fighting a losing battle"

If you're a Christian, you're not fighting *for* victory in life — but fighting *from* victory because the war has already been decisively won."...Our victory happened on the cross...Our triumph is in the resurrection...Our promise of holiness is assured by the Spirit as we walk by His power

거룩함을 위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때로 우리가 죄에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우리가 정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단지 최악에 위선을 더하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거룩함 안에서 우리의 점진적인 성장이 보장된다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십시오

호주 장로교단의 전 **former moderator general** 이었던 **David Jones** 목사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소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패배하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며 분투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패배하는 전쟁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우리의 승리는 부활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행할 때 성령에 의해 보증됩니다.